

언어 영역

제 1 교시

성명

수험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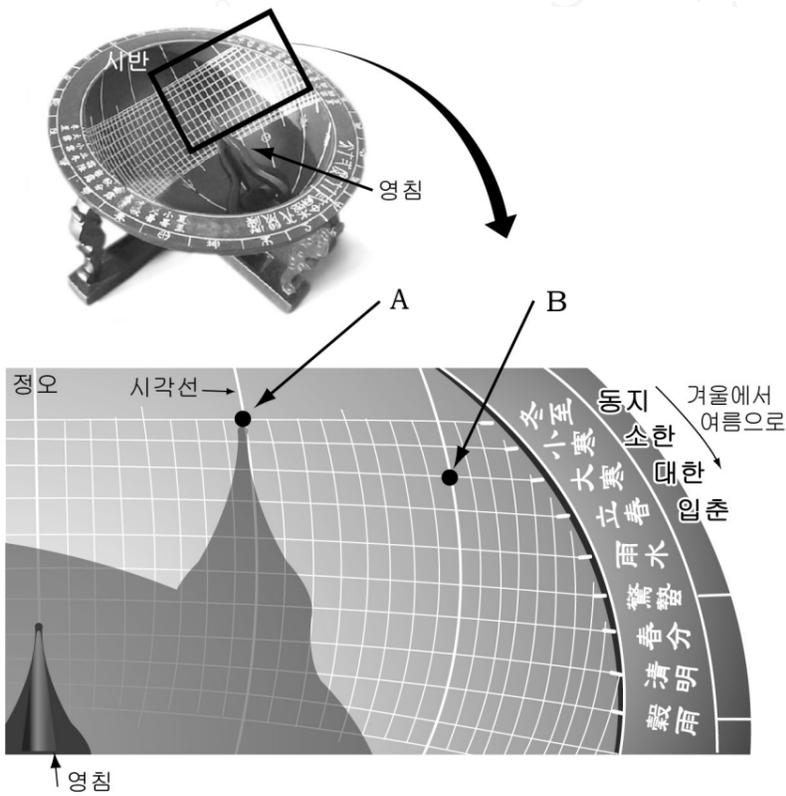
3

1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과 1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알맞은 것은?



- ① 대한, 오전 8시
- ② 소한, 오전 8시
- ③ 대한, 오후 4시
- ④ 소한, 오후 4시
- ⑤ 동지, 오전 10시

2. (물음) 이 대화에서 언급된 내용이 아닌 것은? [1점]

- ① 소비자 물가지수의 개념
- ② 소비자 물가지수의 용도
- ③ 소비자 물가지수를 조사하는 주기
- ④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출하기 시작한 시기
- ⑤ 소비자 물가지수의 조사 품목이 변하는 이유

3. (물음) 이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실패했다라도 다시 시도하라.
- ② 과욕으로 인해 화를 부르지 말라.
- ③ 당장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라.
- ④ 옳다고 생각한 일은 끝까지 고수하라.
- 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말라.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이 대답에서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을 발언 순서에 따라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

- ① 화제를 제시하며 대답을 시작하고 있다.
- ② 실태를 제시하며 대답자의 의견을 묻고 있다.
- ③ 상반된 견해를 인용하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④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한 답변을 유도하고 있다.
- ⑤ 대답자의 답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5. (물음) 이 대답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제도화 방안’에 대한 대답자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 ② 자원봉사 활동의 실적도 기부해야 한다.
- ③ 가족 단위로 어려서부터 참여해야 한다.
- ④ 자원봉사 활동의 계획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 ⑤ 봉사자의 보상 기대를 적절히 만족시켜야 한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보기>의 그림을 모두 활용하여 ‘사회 생활’에 대한 공익 광고를 만들고자 한다. 광고 문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더불어 사는 사회, 이웃 사랑의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 ② 아름다운 사회,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 ③ 원만한 인간 관계, 올바른 언어 사용이 좌우합니다.
- ④ 지나친 욕심, 그 결과는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 ⑤ 차례 지키기, 문화 시민의 기본 자세입니다.

7.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글쓰기 계획을 구상하였다. 구상 과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자료 1>

<자료 2>

패션 중추국인 이탈리아의 밀라노 패션쇼에서 깡마른 모델들이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탈리아 청소년부와 패션 업계는 지나치게 마른 모델이 무대에 서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2006년 8월 우루과이에서 거식증을 앓던 모델이 패션쇼 직후 숨졌을 때에도 규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그 후에 브라질 출신의 모델이 또 다시 목숨을 잃자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게 됐다고 한다. 사망 당시 모델은 키 170cm에 몸무게 38kg에 불과했다. -○○일보-

<자료 1>

온 나라에 ‘몸짱 증후군’이 나타나면서 살빼기 열풍이 불고 있다.

자료 해석

<자료 2>

① 패션쇼 현장에서 모델들의 건강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② 유행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풍조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길러야 한다.

의미 추출

③ 진정한 아름다움은 건강한 정신과 육체가 조화되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④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지 않고 남들이 하는 운동을 따라 하는 태도를 경계하는 글을 쓰는데 활용한다.

활용 방안 모색

⑤ 좋은 성적을 내려는 운동 선수들에게 기초 체력 연마를 촉구하는 글을 쓰는데 활용한다.



주제 발견: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실천 방안의 모색

8.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를 환수해야 한다.’는 주제로 <개요>를 작성한 후, 새로운 <글감>을 접하였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개요>

I. 서론

II. 본론

1. 해외 유출 문화재 현황
가. 유출된 문화재의 분포
나. 유출 문화재 환수 실태

2.

3. 문화재 환수가 어려운 이유
가. 강대국의 무관심
나. 환수 관련 지원의 미흡

4. 문화재 환수 촉진 방안
가. 정부의 외교적 노력
나. 문화재 환수 지원책 강화

III. 결론: 유출 문화재 환수의 중요성 강조

<새로 접한 글감>

ㄱ. 김시민 장군 ‘공신교서’가 환수되면서 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

ㄴ. 해외 유출 문화재의 대부분은 대한제국 말기와 일제 강점기 등 혼란기 때 약탈되었거나 도굴꾼들에 의해 밀반출되었다.

ㄷ. 강대국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타국의 문화재를 귀화 문화재로 보고 반환을 거부하는가 하면, 타국 문화재 반환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 마련에도 소극적이다.

ㄹ. 문화재 반환은 정부 차원의 협상이나 민간 차원의 기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ㅁ. 해외 유출 문화재 현황에 대한 조사나 조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 ① ‘ㄱ’을 ‘서론’에서 활용하여 문화재 환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
- ② ‘ㄴ’을 활용하여 ‘II-2’에 ‘문화재 환수의 정당성’이라는 항목을 추가한다.
- ③ ‘ㄷ’을 ‘II-3-가’에 활용하여 강대국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 ④ ‘ㄹ’을 ‘II-4-가’에 활용하여 문화재 환수 과정의 정치적 성격을 강조한다.
- ⑤ ‘ㅁ’을 ‘II-4-나’에 추가하여 문화재 환수와 관련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9. 인터넷 카페 ‘책사랑’ 코너에 자신이 읽은 소설을 소개하려고 한다. <보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은? [3점]

〈 보기 〉

- 소설을 읽고 얻은 삶의 가치를 드러낼 것
- 소설 제목으로 쓰인 어휘에 함축적 의미를 담을 것
- 대조적인 표현 기법을 활용할 것

읽은 소설	소개 내용
윤홍길 ‘장마’	끝없이 이어질 것 같던 갈등을 따뜻한 인간애로 극복해 가는 이야기를 읽고, 내 삶에 드리워진 지루한 장마를 걷어내고 싱그러운 무지개를 맞이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 ㉠
채만식 ‘탁류’	일제 강점기의 불행한 상황에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초봉’과 자기 삶의 건강성을 지켜 나가는 ‘계봉’이라는 두 자매의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 …… ㉡
현진건 ‘고향’	일제의 수탈로 인해 유랑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삶의 고향을 상실하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일깨워 준다. …… ㉢
선우휘 ‘불꽃’	3·1운동부터 6·25동란까지 역사적 격동기에 순응주의를 거부하고 불꽃처럼 살았던 사람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다. …… ㉣
최인훈 ‘광장’	남북 분단의 비극을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그린 ‘광장’은 남과 북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준 작품이었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10. <보기>의 ㉠ ~ ㉤을 고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국어의 어휘 체계는 일반적으로 삼중(三重) 체계로 파악한다. 원래부터 우리말인 고유어와 한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한자어,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서구 외래어가 그것이다. ㉠ 외래어 사용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들은 그 기원이 명백하게 다른데, 국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의 둘이 확연하게 구분해 진다.

고유어(固有語)란 우리가 옛날부터 사용하여 온 순수한 우리말을 말한다. 순수한 우리말이라 하면 다른 나라에서 빌려 온 말이 아니라 까마득한 옛날부터 ㉢ 우리 조상들이 사용해 왔다. 고유어야말로 우리 국어 어휘의 기본 바탕을 이룬다. 고유어 어휘는 우리말에서 특별한 기능을 ㉣ 담당했던 것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고유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국어 운동은 과거 일제 강점기에는 물론 오늘날에도 애국 운동으로 생각할 정도로 ㉤ 민첩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핵심은 국어순화 운동이며, 국어순화 운동의 중심 내용은 한자어나 일본어, 외래어 대신에 순우리말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 ① ㉠ 은 글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
- ② ㉡ 은 어법에 맞지 않으므로 ‘이 둘을 확연하게 구분해 낸다.’로 고쳐야겠어.
- ③ ㉢ 은 문장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우리 조상들이 사용해 온 말’이라는 뜻이다.’로 고쳐야겠어.
- ④ ㉣ 은 문맥을 고려해서 ‘담당하기보다’로 고치는 것이 좋겠어.
- ⑤ ㉤ 은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활발하게’로 바꿔야겠어.

11.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

‘무엇’이라는 대명사는 ㉠ 모르는 사실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경우나 정하지 않은 대상이나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는 대상을 가리키는 경우에 사용된다.

- ① 화단에 있는 저 꽃의 이름은 무엇인가?
- ② 배가 고프니 무엇이라도 좀 먹어야겠다.
- ③ 남자는 무엇을 증언이라도 하듯 가다듬은 목소리를 냈다.
- ④ 꿈속에서 무엇에 쫓길 때처럼 다리가 제대로 놀지 않았다.
- ⑤ 그는 세간이고 무엇이고 하나도 없는 텅 빈 방 안에서 있었다.

12. <보기1>은 ‘~에서’에 대한 뜻풀이의 일부이다. <보기2>에서 각 각에 해당하는 용례를 찾아 바르게 배열한 것은?

〈 보기1 〉

- ㄱ. 앞말이 근거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ㄴ. 체언 뒤에 붙어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ㄷ. 앞말이 비교의 기준이 되는 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보기2 〉

- a. 고마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b. 어느 학교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 c. 우리는 아침에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 d. 그저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고자 하는 뜻에서 행한 일이다.
- e. 죽은 부모가 살아 돌아온들 이에서 더 기쁘지는 않을 것이다.

- | | | | |
|---|------|------|------|
| | ㄱ | ㄴ | ㄷ |
| ① | a, b | c | d, e |
| ② | a, c | b, e | d |
| ③ | a, d | b, c | e |
| ④ | b, c | d, e | a |
| ⑤ | d, e | a | b, c |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네 소리하게 ㉠ 내 북을 치지

진양조 중머리 중중머리
엇머리 잣아지다 휘몰아보아

이렇게 ㉡ 숨결이 꼭 맞아서만 이룬 일이란
인생(人生)에 흔치 않아 어려운 일 시원한 일

소리를 떠나서야 ㉢ 북은 오직 가족일 뿐
헛때리면 만갑(萬甲)이도 숨을 고쳐 실밖에

장단(長短)을 친다는 말이 모자라오
㉣ 연창(演唱)을 살리는 반주(伴奏)쯤은 지나고
북은 오히려 컨닥타*요

㉤ 떠받는 명고(名鼓)인데 잔가락을 온통 잊으오
떡떡궁! 동중정(動中靜)이오 소란 속에 고요 있어
인생(人生)이 가을같이 익어가오

자네 소리 하게 내 북을 치지

- 김영랑, 「북」 -

* 컨닥타(conductor) : 관현악단의 지휘자

(나)

더불어 살면서도

아닌 것같이,
외파로 살면서도
더불어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할까?

간격을 지키면서
외롭지 않게,
외롭지 않으면서
방해받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름답지 않은가?.....

두 개의 대나무가 묶여 있어 있다

서로간의 기쁨이 없기에
이음과 이음 사이엔

투명한 빈자리가 생기지,

그 빈자리에서만

불멸의 금빛 음악이 태어난다

그 음악이 없다면

결혼이란 악천후,

영원한 원생동물들처럼

서로 돌기를 뻗쳐

자기의 근심으로

서로 목을 조르는 것

더불어 살면서도

아닌 것같이

우리 사이엔 투명한 빈자리가 놓이고

풍금의 내부처럼 그 사이로는

바람이 흐르고

별들이 나부껴,

그대여, 저 신비로운 대나무피리의

전설을 들은 적이 있는가?.....

외파로 살면서도

더불어 같이

죽순처럼 광명한 아이는 자라고

악보를 모르는 오선지 위로는

자비처럼 서러운 음악이 흘러라.....

- 김승희, 「만파식적(萬波息笛)-남편에게」 -

1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 간의 조화로움을 지향하고 있다.
- ② 점층적인 시상 전개를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③ 여운을 남기는 어조를 통해 대상에 대한 경이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설의적 표현을 통해 시적 대상이 지닌 긍정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⑤ 논리적으로 모순된 표현을 통해 화자의 복잡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14. <보기>는 (가)를 감상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들이다. 이를 활용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 ▶ 시인 김영랑 : 이 시인은 판소리 문체를 모방한 구어체 문장과 민요의 율격과 유사한 3음보율 또는 4음보율을 활용하여 전통 예술에 대해 지니고 있던 관심을 표현하였다.
- ▶ 판소리 : 조선 후기 호남 지방에 주로 유행한 전통 종합 예술로서 노래인 창, 대사인 아니리 및 동작인 발림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창을 하는 광대와 북을 두드리는 고수의 호흡이 중요하며 이들의 어울림에 따라 판소리 공연의 질이 결정된다.
- ▶ 만갑 : 조선후기 판소리 명창 송만갑을 의미한다.

- ① 이 시는 독백체와 대화체가 함께 사용되었는데, 이는 판소리의 창과 아니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 ② 전통 민요가 지닌 율격은 주로 3음보율과 4음보율인데, 이 시에서도 시인이 민요의 율격을 수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 ③ 판소리에서 북과 창이 모두 필요한 것처럼, 인간이 성숙하려면 인생과 예술의 어울림이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어.
- ④ 판소리에서 광대와 고수의 호흡이 중요한 것처럼, 예술의 완성을 위해서는 구성 요소들의 어울림이 필요함을 알 수 있겠군.
- ⑤ 실제 명창의 예를 통해 위대한 예술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하는 힘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군.

15. ㉠~㉣ 중, 불멸의 금빛 음악과 함축적 의미가 유사한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16. (나)의 시구가 지닌 의미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더불어 살면서도 아닌 것같이’에는 부부가 서로의 차이점을 그대로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뜻이 담겨 있다.
 ② ‘간격’은 부부가 원만한 삶을 살기 위해 지켜야 할 심리적 거리를 의미하며,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③ ‘투명한 빈자리’는 대나무가 소리가 나는 악기가 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이면서 동시에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에 필요한 공간이다.
 ④ ‘영원한 원생동물’은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자기 뜻대로 구속하려는 사람을 의미한다.
 ⑤ ‘자비처럼 서러운 음악’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삶을 구속하면서 원만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애를 나타낸다.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시골의 한 부자가 도리를 저버린 친척의 재산 분배에 대한 요구에 형조에 처벌을 요구하는 송사를 의뢰한다. 그러나 친척은 갖은 수단을 써서 형조의 관원들을 만난다. 그리하여 재판에서 패하게 된 부자가 관원들에게 서로 소리 겨룸을 하던 날짐승들의 송사 이야기를 들려준다.

황새놈이 덩싯 웃고 이르되,

“이런 급한 일이 있기에 나를 보러 왔지, 그렇지 아니하면 어찌 왔으리요. 그러나 ㉠ 네 무슨 일인지 네 소회를 자세히 아뢰어라.”

따오기 아뢰되,

“다른 일이 아니오라 피꼬리와 삐꾸기와 소인과 세 놈이 우는 소리 겨룸하였더니 자과(自誇)를 부지(不知)라. 그 고하를 정하지 못하옵기로 결단치 못하여 왔삽더니 서로 의논하되 장군께옵서 심히 명철처분하시므로 명일에 댁에 모여 송사하려 하오니 그 중 소인의 소리 세 놈 중 참혹하여 아주 꺾짜치오니* 필야 송사에 이기지 못하올지라. 미련하온 소견에 남 먼저 사또께 이런 사연을 아뢰어 청이나 하옵고 그 두 놈을 이기고자 하오니, 사또 만일 소인의 전정(前情)을 잊지 아니하옵시고 명일 송사에 아래 하(下)자를 웃 상(上)자로 도로 집어 주옵심을 바라옵나이다.”

황새놈이 이 말을 듣고 속으로 펍 튼튼히 여겨 하는 말이,

“도시 상놈이란 것은 미련이 약차하여 사체경중(事體敬重)을 아지 못하고 ㉡ 제 욕심만 생각하여 아무 일이라도 쉬운 줄로 아는 구나. 대저 송사에는 애증(愛憎)을 두면 칭원(稱冤)도 있고 비례 호송하면 정체에 손상하나니 어찌 그런 도리를 알리요. 그러나 [A] 송사는 곡직을 불계(不計)하고 꾸며대기에 있나니 이른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 어찌 네 일을 범연히 하여 주랴. 전에도 네 내 덕도 많이 입었거니와 이 일도 내 아무쪼록 힘을 써 보려니와 만일 내 네 소리를 이기어 주어 필연 청 받고 그릇 공사한다 하면 아주 입장이 난처하게 되리니 이를 염려하노라.”

따오기 고쳐 아뢰되,

“분부가 이렇듯 하시니 상덕(上德)만 믿고 가나이다.”

황새 웃고 이르되,

㉢ “성사하기 전 세상사를 어찌 알리요, 어디 보자.”

하거늘, 따오기 하직하고 돌아왔더니, 날이 밝으며 세 짐승이 황새 집에 모여 송사할새 황새놈이 대청에 좌기하고 무수한 날짐승이 좌우에 거행하는지라. 그 중 수리는 율관(律官)이요 솔개미, 까치, 징경이, 올빼미, 바람개비, 비둘기, 부엉이, 제비, 참새 등 짐승이 좌우에 나열하여 불러들이니 세 놈이 일시에 들어와 아뢰되,

“소인 등이 소리 겨룸 하옵더니 능히 그 고하를 판단치 못하오매, 부월(斧鉞)을 무릅쓰고 사또 전에 송사를 올리오니 명철처분하옵심을 바라옵나이다.”

하되, 황새 정색하고 분부하여 이르되,

㉣ “너희 등이 만일 그러할진대 각각 소리를 하여 내게 들린 후 상하를 결단하리라.”

하니 피꼬리 먼저 날아들어 소리를 한번 곱게 하고 아뢰되,

“소인은 방춘화시 호시절에 이화도화 만발하고 앞내의 버들빛은 초록장 드리운 듯 뒷내의 버들빛은 유록장(柳綠帳) 드리운 듯, 금빛 같은 이내 몸이 날아들고 떠들면서 흥에 겨워 청아한 쇠옥성을 춘풍결에 흩날리며 구십춘광 보낼 적에 뉘 아니 아름답게 여기리이까.”

황새 한번 들으며 과연 제 말과 같으며 심히 아름다운지라. 그러나 이제 제 소리를 종다 하면 따오기에게 청받은 뇌물을 도로 줄 것이요, 좋지 못하다 한즉 공정치 못한 것이 정체가 손상할지라. 침음반향(沈吟半晌)*에 제사(題辭)하여 으르되,

“네 들어라. 당시에 운하되 타기황앵아(打起黃鶯兒)하여 막교지상제(莫教枝上啼)라 하였으니 네 소리 비록 아름다우나 애잔하여 쓸데없도다.”

피꼬리 잠척히 물러나올새 삐꾸새 또 들어와 목청을 가다듬고 소리를 묘하게 하여 아뢰되,

“소인은 녹수천산(綠水千山) 깊은 곳에 만학천봉 기이하고 안개 피어 구름되며 구름 걸어 다기봉하니 별건곤이 생겼는데 만장폭포 흘러내려 수정렴을 드리운 듯 송풍은 소슬하고 오동추야 밝은 달에 섬겨온 이내 소리 만첩산중에 가금성이 되오리니 뉘 아니 반겨하리이까.”

황새 듣고 또 제사하여 이르되,

“월낙자규제(月落子規啼)하니 초국천일애(楚國千日愛)라 하였으니, 네 소리 비록 쇠락(灑落)하나 십분 궁수(窮愁)하니 전정을 생각하면 가히 불쌍하도다.”

하니 삐꾸새 또한 무료*하여 물러나거늘, 그제야 따오기 날아들어 소리를 하고자 하되 저보다 나은 소리도 벌써 지고 물러나거늘 어찌 할꼬 하며 차마 남 부끄러워 입을 열지 못하나 그 황새에게 약 먹임을 믿고 고개를 낮추어 한번 소리를 주하며 아뢰되,

“소인의 소리는 다만 따옥성이웁고 달리 풀쳐 고하올 일 없사오 니 사또 처분만 바라고 있나이다.”
 하되, 황새놈이 그 소리를 문득 듣고 두 무릎을 탕탕치며 좋아하여 이른 말이,
 “쾌재(快哉)며 장재(壯哉)로다. 음아질타에 천인이 자폐(自斃) 함은 옛날 항장군의 위풍이요 장관교 다리 위에 백만군병 물리치 던 장익덕의 호통이로다. ㉠ 네 소리 가장 웅장하니 짐짓 대장부의 기상이로다.”
 하고 이렇듯 처결하여, 따옥성을 상성으로 처결하여 주오니, 그런 짐승이라도 뇌물을 먹은 즉 오결하여 그 피꼬리와 삐꼭새에게 못할 노릇 하였으니 어찌 양급자손(殃及子孫) 아니 하오리이까. 이러하 온 짐승들도 물욕에 잠겨 틀린 노릇을 잘 하기로 그 놈을 심히 욕하고 우셨으니, 이제 ㉡ 서울 법관도 여차하오니 소인의 일은 벌써 판이 났으며 부질없는 말하여 쓸데없으니 이제 물러가나이다.”
 하니 형조 관원(刑曹官員)들이 대답할 말이 없어 가장 부끄러워하더라.
 - 작자미상, 「황새 결송(決訟)」 -
 * 쟁짜치오니 : 면목이 없으니
 * 침음반향(沈吟半响) : 입속으로 웅얼거리며 만나절이나 깊이 생각함.
 * 무료 : 부끄럽고 열없음.

17. 위 글의 등장인물들에 대한 추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피꼬리’는 자신의 울음소리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해 왔던 것 같아.
 - ② ‘황새’가 불공평한 판결을 하는 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인 것 같아.
 - ③ ‘삐꼭새’가 ‘황새’의 판결에 이의 없이 물러서는 것을 보니 소극적인 인물인 것 같아.
 - ④ ‘따오기’가 자기 소리를 자랑하지 않고 사또의 처분만 기다리는 것은 겸손한 모습으로 보여.
 - ⑤ ‘황새’가 ‘날짐승’들을 재판정에 부른 것은 판결이 공정하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여.
18. [A]에 나타난 ‘황새’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있다.
 - ②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고 한다.
 - ③ 상대방을 훈계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려고 한다.
 - ④ 상대방을 배려하면서도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상대방을 고려하면서도 자신의 너그러움을 과시하고 있다.

19. ㉠에 해당하는 ‘황새의 행위’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1점]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20. <보기>를 참고할 때, 위 글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교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우화소설은 상징성이 풍부한 우화 형식을 이용해 타락한 사회상을 비판하는 한편, 당대 사람들의 삶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새로운 가치와 윤리의식을 드러낸다. 이 형식은 인간 유형의 전형(典型)을 통해 인생과 사회의 단면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 송사소설은 송사 사건의 발생·경과·해결 과정 및 판결과 그 결과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사이의 다양한 갈등이 당대의 시대 사회적 변모양상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 ① 무지가 많은 문제를 가져오는구나. 불치하문(不恥下問)이라는 말이 있듯이 누구에게나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겠어.
- ② 공적인 일에 사사로운 관계를 개입시키면 안 되겠구나. 공평무사(公平無私)라고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하겠어.
- ③ 한 쪽의 입장만을 두둔하면 판단이 잘못될 수 있구나. 불편부당(不偏不黨)이라고 공정하게 판정하는 일이 중요하겠어.
- ④ 잘못된 관행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겠구나. 파사현정(破邪顯正)이라는 말처럼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 일이 필요하겠어.
- ⑤ 거짓을 언제까지나 숨길 수는 없는 법이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옳지 못한 일은 밝혀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어.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경제·사회 발전의 과정에서 경제적 자원과 활동의 집적이나 집중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불균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다. 예컨대 경제·사회 발전은 열심히 하는 경제 주체에게 더 많은 자원의 집적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경제·사회 발전이 심화될수록 부의 분배가 더 불평등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지위크는 경제적 차별화에 따른 분배, 즉 각자가 자신이 이뤄낸 성과에 부합하는 보상을 받는 분배는 정의롭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차별화 패러다임 하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소위 음지의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없어도 좋다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일 뿐만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존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아담 스미스의 ‘동정과 자비’, 존 롤스의 ‘가장 어려운 처지의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배려’는 사회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불가피한 도덕적 명령이다. 따라서 복지정책이 없는 국가를 상정할 수는 없다.

국민의 복지를 위한 정부 개입의 정도는 시대나 상황의 요구에 따라 달랐다. 나치 독일의 전쟁국가에 대한 대립 개념으로 등장한 복지국가는 1942년 <베버리지보고서>에 의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개인의 복지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개념으로 정착되었다. 즉 복지국가란 일반 국민들에게 최저 소득의 보장, 사회 안전망의 제공, 최상의 사회 서비스의 보장 등을 위한 목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한 형태를 지칭한다. 제2 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와의 대결 과정에서 이러한 복지 지출의 과다로 복지병에 시달린 경험이 많아 최근에는 복지국가 개념이 크게 쇠퇴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소득이 높은 북유럽의 국가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복지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복지의 정도는 국가의 경제력 유무에 달려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복지의 정도가 아니라 ㉠ 어떠한 복지제도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시지위크의 경제적 차별화에서 해법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강한 경제에서 출발하여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발전의 기본 원리인 차별화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복지가 시행된다면 경제 자체의 발전이 잠식됨으로써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

첫째, 복지를 위한 재원의 조달 과정에서 스스로 노력하는 자들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차별화 원리에 훼손이 오고 나아가 경제·사회 발전의 역동성이 약화된다. 둘째, 복지의 지출 방식이 단지 ‘그늘진 환경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하게 될 때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건강한 노동력을 보유한 계층이 단지 그늘진 계층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 그 계층에 계속 안주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형편이 더 나은 계층으로 하여금 그늘진 계층으로 내려가게 하는 또 다른 형태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면서도 복지국가로서의 기능을 다 하려면 다음의 방식이 매우 유용하다. 즉, 복지 재원 조달방식이 스스로 노력하는 자들을 역차별할 정도로 지나치게 고율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복지제도가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양지로 이끌어내는 데 그 근본 목적을 ㉡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복지 지출은 자력갱생의 길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스스로 돕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더 우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2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복지정책은 자력갱생을 돕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②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 ③ 경제적 자원이 집중되면 빈부의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 ④ 복지제도의 확대는 경제 발전의 역동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 ⑤ 차별화의 원리가 복지에 적용되면 도덕적 해이가 유발된다.

22.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에 대한 정책을 수립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납부 세금이 많으면 복지 혜택도 많이 받도록 한다.
- ② 장기 근속 근로자를 위한 각종 복지 혜택을 강화한다.
- ③ 복지 재원의 조달 과정에서 ‘차별화의 원리’를 적용한다.
- ④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공급한다.
- ⑤ 저소득 근로자에게 세금 감면의 방식으로 생계비를 보조한다.

23.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나타난 ‘도덕적 해이 현상’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도덕적 해이란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는 마음 가짐이나 행동, 즉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희생한 대가로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① 보험 가입자인 주부 A씨는 교통 사고로 부상을 입은 후 사고 후유증을 염려하여 정밀 검사를 요구하였다.
- ② B은행이 예금 유치를 위해 높은 금리의 상품을 개발하자 많은 예금주들이 거래 은행을 바꾸는 현상이 나타났다.
- ③ 회사원 C씨는 등산 중에 다리를 다치자 국가에 생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직장을 퇴직한 후 직업을 구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였다.
- ④ 의사인 D씨는 환자의 병증이 일반적인 상황과 다른 것을 확인하고 의료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고가의 검사를 실시하였다.
- ⑤ 실업자인 E씨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 교육을 받았으나 직업을 구하지 못해 또 다른 직업훈련 교육을 요청하였다.

24.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황소 한 마리를 두고 씨름판을 벌이다.
- ② 식품을 필요 이상으로 고온에 두지 마라.
- ③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야 한다.
- ④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 ⑤ 요즘에는 이불에 오리털을 두어서 누비기도 한다.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등빛이나 특수한 조명 아래에서 본 물체의 색이 자연광 아래에서 다시 보면 다른 색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 눈이 색을 인식하는 능력이 어두운 곳과 밝은 곳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람의 눈은 빛이 있어야 물체를 볼 수 있다. 눈은 명암과 색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멀고 가까움을 알 수 있으며 입체감도 느낄 수 있다. 또한 주위 환경의 밝기에 따라 눈 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할 수도 있고 가까운 물체를 보다가도 먼 곳의 물체를 볼 수 있는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눈은 지름 약 2.3cm의 크기로 앞쪽이 볼록 튀어나온 공처럼 생겼으며 탄력이 있다. 눈의 가장 바깥 부분은 흰색의 공막이 싸고 있으며 그 안쪽에 검은색의 맥락막이 있어 눈동자를 통해서만 빛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눈의 앞쪽은 투명한 각막으로 되어 있는데, 빛은 이 각막을 통과하여 그 안쪽에 있는 렌즈 모양의 ㉠ 수정체에 의해 굴절되어 초점이 맞추어져 ㉡ 망막에 상을 맺는다. 이 망막에는 빛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시신경세포가 있다.

이 시신경세포는 원뿔 모양의 '원추세포'와 간상세포(桿狀細胞)로도 불리는 막대 모양의 '막대세포'라는 두 종류로 이루어진다. 원추세포는 눈조리개의 초점 부근 좁은 영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그 세포 수는 막대세포에 비해 매우 적다. 이에 반해 막대세포는 망막 전체에 걸쳐 분포되어 있고 그 세포 수는 원추세포에 비해 매우 많다. 원추세포와 막대세포는 각각 다른 색깔의 빛에 민감한데, 원추세포는 파장이 500나노미터 부근의 빛(노랑)에, 막대세포는 파장이 560나노미터 부근의 빛(초록)에 가장 민감하다.

원추세포는 그 수가 많지 않으므로, 우리 눈은 어두운 곳에서 색을 인식하는 능력은 많이 떨어지지만 밝은 곳에서는 제 기능을 잘 발휘하는데, 노란색 근처의 빛(붉은색-주황색-노란색 구간)이 특히 눈에 잘 띈다. 노란색이나 붉은색으로 경고나 위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색들은 밝은 곳에서 눈에 잘 띠어 안전을 위해 효율적이지만 날이 어두워지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인간의 눈은 우리 주위에 가장 흔한 가시광선에 민감하도록 진화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 주위에 가장 흔하고 강한 노란 빛에 민감하도록 진화해왔을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노란색에 가장 민감함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시신경세포의 대부분은 막대세포들인데, 이 막대세포는 비타민 A에서 생긴 로돕신이라는 물질이 있어 빛을 감지할 수 있다. 로돕신은 빛을 받으면 분해되어 시신경을 자극하고, 이 자극이 대뇌에 전달되어 물체를 인식한다. 그 세포들은 비록 색을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초록색 빛을 더 민감하게 인식한다. 즉, 비록 색깔을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두운 곳에서는 초록색 물체가 잘 보인다.

이것은 아마도 식물이 초록빛을 띠는 현상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인간이 먹는 음식물의 원천이면서 휴식처가 되기도 하는 식물을 잘 식별하기 위해서 우리 눈은 그렇게 진화해 오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험한 상태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는 초록빛보다 더 강한 노란색 빛을 이용하여 위험을 감지할 필요도 생겨났을 것이다. 즉, 우리 인체는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 적은 수이지만 원추세포를, 그리고 먹이를 잘 식별하기 위해 많은 수의 막대세포를 따로 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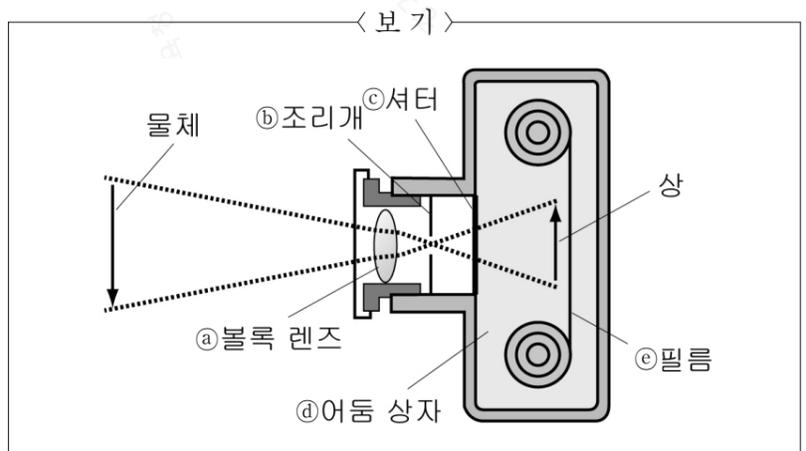
25. 위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빛은 사람이 물체를 인식하는 데 필수적이다.
- ② 인간의 눈은 가시광선에 민감하도록 진화되어 왔다.
- ③ 빛의 밝기에 따라 색의 구별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
- ④ 사람들이 빛을 감지하는 것은 로돕신과 관련이 있다.
- ⑤ 비상구의 녹색 표시등은 원추세포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

26.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원추세포'와 '막대세포'를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항목	원추세포	막대세포
①	위치	눈조리개 초점 부근	망막 전체
②	세포 수	막대세포에 비해 매우 적음	원추세포에 비해 매우 많음
③	민감한 반응 색	노랑	초록
④	주된 기능	명암 분별	색 분별
⑤	주된 이용	위험 감지	먹이 식별

27. ㉠과 ㉡에 대응하는 것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1점]



- | | | |
|---|---|---|
| | ㉠ | ㉡ |
| ① | a | b |
| ② | a | e |
| ③ | b | c |
| ④ | b | d |
| ⑤ | c | e |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입고 낙오한 주 대위와 현 중위, 김 일병 세 사람은 무턱대고 남쪽으로 내려온다. 부상당한 주 대위를 교대로 업고 오던 현 중위는 떠나지만 김 일병은 주 대위를 업고 오다가 현 중위의 시체를 발견하고 자신의 죽음을 몸 가까이 느끼게 된다.

저도 모르게 혼곤히 잠속에 끌려 들어갔던 김 일등병은 주 대위가 무어라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다. 하늘에 별이 총총 나 있었다.

“저 소릴 좀 듣게.”

주 대위가 누운 채 쇠진한 목 안의 소리로,

“뾰소릴세.”

김 일등병은 정신이 번쩍 들어 상반신을 일으키며 귀를 기울였다. 과연 먼 우레 소리 같은 포성이 은은히 들려오는 것이다.

“어느 편 폼니까?”

“아군의 포야. 백오십오 밀리의…….”

이 주 대위의 감별이면 틀림없는 것이다. 그래 얼마나 먼 거리냐고 물으려는데 주 대위 편에서,

“그렇지만 너무 멀어, 사십 리는 실히 되겠어.”

그렇다면 아무리 아군의 포라 해도 소용이 없다.

김 일등병은 도로 자리에 누워 버렸다.

주 대위는 지금 자기는 각각으로 죽어 가고 있다고 느꼈다. 이상스레 맑은 정신으로 그게 느껴졌다.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지금까지 피해 오던 어떤 상념과 정면으로 부딪쳤다. 그것은 권총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아무래도 죽을 자기가 진작 자결을 했던들 모든 문제는 해결됐을 게 아닐까. 첫째 현 중위가 밤길을 서두르다가 벼랑에 떨어져 죽지 않았을는지 모른다. 아무튼 이제라도 자결을 해버려야 한다. 그러면 아무리 지친 김 일등병이라 하더라도 혼잣말이니 어떻게든 아군 진지까지 도달할 가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는 김 일등병을 향해,

“뾰소리 나는 방향은 동남쪽이다. 바로 우리가 누워 있는 발 쪽 벼랑을 왼쪽으루 돌아 내려가면 된다!”

있는 힘을 다해 명령조로 말했다. 그리고 무거운 손을 움직여 허리에서 권총을 슬그머니 빼었다.

그때, 바로 그때 주 대위의 귀에 은은한 뾰소리 사이로 또 다른 하나의 소리가 들려 온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도 의심스러운 듯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저 소리가 무슨 소리지?”

김 일등병이 고개만을 들고 잠시 귀를 기울이듯 하더니,

“무슨 소리 말입니까?”

“지금은 안 들리는군.”

거기에 그쳤던 소리가 바람을 탄 듯이 다시 들려 왔다.

“저 소리 말야. 이 머리 쪽에서 들려오는…….”

그래도 김 일등병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개 짖는 소리** 같애.”

개 짖는 소리라는 말에 김 일등병은 지친 몸을 벌떡 일으켜 머리 쪽으로 무릎걸음을 쳐나갔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인가가 있음에 틀림없었다.

“그 등성이를 넘어가면 된다!”

그러나 김 일등병의 귀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누웠던 자리로 도로 뒷걸음질을 쳤다.

주 대위는 김 일등병에게 ㉠ 무엇인가 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도 받고 싶었다.

김 일등병이 드러누우며 혼잣소리로,

“내일쯤은 까마귀 떼가 더 많이 몰려들겠지. 눈알이 붙어 있는 거 두 오늘 밤뿐야.”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권총 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렸다.

깜짝 놀라 돌아다보니 어둠 속에 주 대위가 권총을 이리 겨누 채 목 속에 잠긴 음성치고는 또렷하게,

“날 업어!” 하는 것이다.

김 일등병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하면서도 하라는 대로 일어나 등을 돌려 대는 수밖에 없었다.

“자, 걸어라!”

김 일등병은 자기 오른쪽 귀 뒤에 권총 끝이 와 닿음을 느꼈다.

등성이를 넘어 킁킁한 나무숲으로 들어섰다.

“좀 서!”

업힌 주 대위가 잠시 귀를 기울이고 나서,

“왼쪽으루 가!”

좀 후에 그는 다시, “잠깐만.”

그리고는, “앞으루!”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하는 주 대위의 말대로 죽을힘을 다해 걸음을 옮겨 놓는 동안에도 김 일등병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혹시 주 대위가 죽음을 앞두고 허깨비 소리를 듣고 그러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하필 자기네 두 사람은 마지막에 이리다가 죽을 필요는 무언가. 어젯저녁부터 혼자 업고 오느라고 갖은 고역을 다 겪으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원망이 주 대위를 향해 거둬 받쳐 오름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A] 하지만 견지 않을 수 없었다. 오른쪽 귀 뒤에 감촉되는 권총 끝이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권총이 비틀거리는 걸음이나 마 옮겨 놓게 하는 거나 다름없었다.

산 밑에 이르렀다.

“오른쪽으루!”

“그대루 똑바루!”

그제야 김 일등병의 귀에도 무슨 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점점 개 짖는 소리로 확실해졌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한 거리에서인지 짐작이 안 되었다.

목에서는 단내가 나고, 간신히 옮겨 놓는 걸음은 한껏 깊은 데로 무한정 빠져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렇건만 쉬어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귀 뒤에 와 닿은 권총 끝이 더 세게 밀고 있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다. 어떻게 걸음을 떼어 놓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는데 저쪽 어둠 속에 자리 잡은 초가집 같은 검은 그림자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 그리고 거기서 짚고 있는 개의 모양이 몽롱해진 눈에 어렴풋이 들어왔다고 느낀 순간과 동시에 귀 뒤에 와 밀고 있던 권총 끝이 별안간 물러나면서 업힌 주 대위 몸뚱이가 무겁게 탁 내려앉음을 느꼈다.

- 황순원, 「너와 나만의 시간」 -

32. 위 글에 대한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보기 >

- ㄱ. 간결한 문장과 사실적 묘사로 기술되었다.
- ㄴ. 서사 전개 과정에 서술자가 개입하고 있다.
- ㄷ. 사건의 관찰과 서술 사이에 시간적 간격을 두었다.
- ㄹ. 인물이 처한 상황과 심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가, 라
- ④ 나, 라 ⑤ 다, 라

33. **개 짚는 소리**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품의 분위기에 긴장감을 부여한다.
- ② 주인공이 과거를 회상하는 연결고리가 된다.
- ③ 인물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매개로 작용한다.
- ④ 사건이 전개되는 자연 환경의 특성을 제시한다.
- ⑤ 인물의 내면 심리가 전환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34. ㉠에 내포된 의미를 적절히 표현한 것은?

- ① 머잖아 전쟁이 끝날 것이네.
- ② 자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하겠네.
- ③ 우리를 찾는 아군이 곧 도착할 것이네.
- ④ 조금만 더 내려 가면 마을이 있을 것이네.
- ⑤ 자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해하겠네.

35. [A]의 상황에서 김일병이 <보기>의 장면을 떠올렸다면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개천 독에 이르렀다. 외나무 다리가 놓여 있는 그 시냇물이다. 진수는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물은 그렇게 깊은 것 같지 않지만, 밑바닥이 모래흩이어서 지팡이를 짚고 건너가기가 만만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외나무다리는 도저히 건너갈 재주가 없고..... 진수는 하는 수 없이 독에 퍼지고 앉아서 바짓가랑이를 걸어 올리기 시작했다. 만도는 잠시 멀뚱히 서서 아들의 하는 양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진수야, 그만두고, 자아 업자.”하는 것이었다.
 “업고 건드면 일이 다 되는 거 아니냐. 자아, 이거 받아라.”
 고등어 묶음을 진수 앞으로 민다.

- ① 조금하게 서둘렀던 자기 행동을 반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 ② 현실 극복은 서로가 힘을 합해야 가능함을 느꼈기 때문에
- ③ 고향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부모님을 떠올렸기 때문에
- ④ 부조리한 현실에도 꿋꿋한 사람들의 모습에 감동했기 때문에
- 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스스로를 뉘우쳤기 때문에

[36~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일찍이 예쁜 눈썹 화장한 얼굴 비추더니 曾照蛾眉粉面新
 십 년 동안 경대함 아래서 오래 먼지에 묻혔네. 十年奩底久埋塵
 밝은 본바탕은 원래 손상되지 않았건만 皎然本質元無損
 먼지 털고 광을 내는 한 사람이 없었네. 刮垢磨光欠一人

- 원천석, 「옛거울 (古鏡)」 -

(나)

굴레 벗은 천리마(千里馬)를 뉘라서 잡아다가
 조죽(租粥) 삶은 콩을 살찌게 먹여 둔들
 ㉠ 본성이 외양*하거니 있을 줄이 이시랴.

- 김성기의 시조 -

* 외양 : 억세고 거침

(다)

“무슨 새지?”
 어떤 초대석에서 한 손님이 물었다.
 “종달새야.”
 [A] 주인의 대답이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나는
 “종달새라고? 하늘을 솟아오르는 것이 종달새지 저것은 조롱
 (鳥籠)새야.” 내 말이 떨어지자 좌중은 경탄하는 듯이 웃었다.
 그날 밤 나는 책을 읽다가 아까 친구 집에서 한 말을 뉘우쳤다.
 비록 갇혀 있는 새라 하여도 종달새는 공작이나 앵무새와는 다르
 다. 갇혀 있는 공작은 거치른 산야보다 아늑한 우리 안이 낫다는 듯
 이 ㉠ 안일하게 살아간다. 화려한 날개를 펴고 ㉡ 교태를 부리기도
한다. 앵무새도 자유를 망각하고 감금 생활에 적응한다. 곧잘 ㉢ 사
람의 말을 흉내도 낸다. 예전 어떤 집에는 일어상용(日語常用)하는
 주인을 따라 “오하요(안녕)”하고 인사를 하는 앵무새가 있었다.
 그러나 종달새는 갇혀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 종달새는 푸른
 숲, 파란 하늘, ㉣ 여름 보리를 기억하고 있다. 그가 꿈을 꿀 때면, 그
 배경은 새장이 아니라 언제나 넓은 들판이다.
 아침 햇빛이 조롱에 비치면 그는 착각을 하고 문득 날려다가
 ㉤ 날개를 파닥거리며 쓰러지기도 한다. 설사 그것이 새장 속에서
 태어나 아름다운 들을 모르는 종달이라 하더라도, 그의 핏속에는 선
 조 대대의 자유를 희구하는 정신과 위로 위로 지향하는 강한 본능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캠벨 수도원의 수녀는 갇혀 있다 하더라도 그는 죄인이 아니라 바
 로 자유 없는 천사다. 해방 전 감옥에는 많은 애국자들이 갇혀 있었
 다. 그러나 철장도 콘크리트 벽도 어떠한 고문도 자유의 환신인 그
 들을 타락시키지는 못했다.

시온 - 너의 감옥은 성스러운 곳
 너의 슬픈 바닥은 제단(祭壇)
 바로 그이의 발자국이 닳아
 너의 찬 포석(鋪石)이 잔디인 양 자국이 날 때까지
 보니바루*가 밟았다
 누구도 이 흔적을 지우지 말라
 그것들은 폭군으로부터 신에게 까지 호소하나니

이것은 내가 좋아 하는 시구(詩句)였다.

예전 북경(北京)에는 이른 새벽이면 고궁 담 밖에 조롱을 듣고 있는 노인들이 있었다. 궁 안에서 우는 새소리를 들려주느라고 서 있는 것이다. 울지 않던 새도 같은 종류의 새소리를 들으면 제 울음을 운다는 것이다. 거기 조롱 속에 종달새가 있었다면, 그 울음은 단지 배워서 하는 노래가 아니라 작은 가슴에 뭉쳐 있던 분노와 갈망의 토로였을 것이다. 조롱 속의 새라도 종달새는 종달새다.

- 피천득, 「종달새」 -

* 보니바루 : 바이런의 시 '시온의 죄수'의 주인공 이름
시온성 지하 감옥에 6년 동안 수감되었던 종교개혁자

36. (가) ~ (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상징화시켜 현실 세계와의 화합을 강조한다.
- ② 자문자답을 통해 자신이 삶에서 깨달은 진리를 전달한다.
- ③ 단호한 어조를 통해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강조한다.
- ④ 대조적 이미지로 화자의 외로운 내면세계를 그려내고 있다.
- ⑤ 다른 사물에 빗대어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37.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원천석은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문인으로서 31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인정을 받았으나, 현실 정치에 참여할 뜻을 버리고 은거하였다. 그러나 자연 속에 은거하면서도 나이가 들수록 현실 정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고, 자신의 포부를 펼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 ① '십년 동안', '오래' 는 자신의 포부와 재주가 쓰이지 못하고 있던 세월을 의미한다.
- ② '먼지'는 화자가 지닌 뜻을 펼치기 어려웠던 현실을 의미한다.
- ③ '묻혔네', '없었네'의 서술어를 통해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낸다.
- ④ '먼지 털고'의 주체는 화자 자신으로서 능력을 갈고 닦아 현실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 ⑤ '광을 내는 한 사람'은 화자의 '밝은 본바탕'을 알아주는 대상을 의미한다.

38. ㉠ ~ ㉥ 중에서 ㉠과 함축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39. (나)의 '천리마'의 입장에서 (다)의 **앵무새**를 비판할 수 있는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 ②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
- ③ 갓만 쓴다고 선비가 될 수는 없다.
- ④ 무른 감도 쉬어 가면서 먹어야 한다.
- ⑤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메운다.

40. <보기>는 수필의 서두 쓰기에 나타난 다양한 방식들이다. 발상의 측면을 고려할 때, [A]에 활용된 방식을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3점]

〈 보기 〉

가. 대화체의 사용으로 독자의 관심을 유발시키는 방식	“자네 피탄이란 것 아냐?” “피탄이라니, 그게 뭔데……?” “중국집에서 배갈 안주로 내는 오리 알 말 이야. ‘피탄’이라고 쓰지.” <김소운, ‘피탄 문답’ 서두 중에서>
나. 핵심적 주제를 제시하며 시작하는 방식	지조란 것은 순일한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겨운 정성이며, 냉철한 확집이요, 고귀한 투쟁이기까지 하다. <조지훈, ‘지조론’ 서두 중에서>
다. 대상의 속성을 예찬하며 시작하는 방식	나무는 덕을 가졌다. 나무는 주어진 분수에 만족할 줄을 안다. 나무로 태어난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왜 여기 놓이고 저기 놓이지 않았는가를 말하지 아니한다. <이양하, ‘나무’ 서두 중에서>
라. 일상 속에서 체험한 사건을 고백적 형식으로 시작하는 방식	예전 상해에서 본 일이다. 늙은 거지 하나가 전장에 가서 떨리는 손으로 일원짜리 은전 한 닢을 내놓으면서 ‘황송하지만, 이 돈이 못쓰는 것이나 아닌지 좀 보아 주십시오.’하고 그는 마치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과 같이 전장 사람의 입을 쳐다본다. <피천득, ‘은전 한 닢’ 서두 중에서>

- ① 가,나 ② 가,라 ③ 나,다 ④ 나,라 ⑤ 다,라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집트 신왕국의 벽화’는 그리스 예술과는 전혀 판판이다. 이집트의 벽화나 회화에 그려진 인물은 대개 머리는 옆을 향하고, 상체는 앞을 향하며, 다시 발은 옆을 향한다. 이런 특이한 묘사 방식에 학자들은 ‘정면성의 원리’라는 이름을 붙인다. 이 원리가 의도하는 바는 무엇일까? 사물의 특징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측면에서 묘사하여, 되도록 사물의 형태를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가령 인간의 얼굴이 옆에서 볼 때 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다면 연못은 위에서 내려다 볼 때, 물고기는 누워 있을 때 그 형태가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집트 신왕국의 벽화>

이렇게 볼 때 이집트인들의 관심은 사물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보다는, 사물의 본질적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도록 그리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에게 우연적이며 일시적인 인물의 동작이나 자세는 별 의미가 없었고 본질적이고 변하지 않는 인물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예술은 하나의 시각적 추상인 셈이다. 추상적인 그림에서의 인물은 구체적인 어떤 인간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으로 나타난다. 하셉수트 여왕의 탄생을 그린 이집트의 벽화는 갓 태어난 여왕을 사내아이로 묘사하고 있다. 성별 따위는 제왕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라는 개념이 우리집 강아지와 이웃집 도사견을 구별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특정한 어떤 개는 죽어도 개의 ‘개념’은 결코 죽지 않듯이 이집트의 인물상은 결코 죽을 것 같지 않고, 삶과 죽음을 넘어서서 저 영원한 세계를 향해 날아오르는 듯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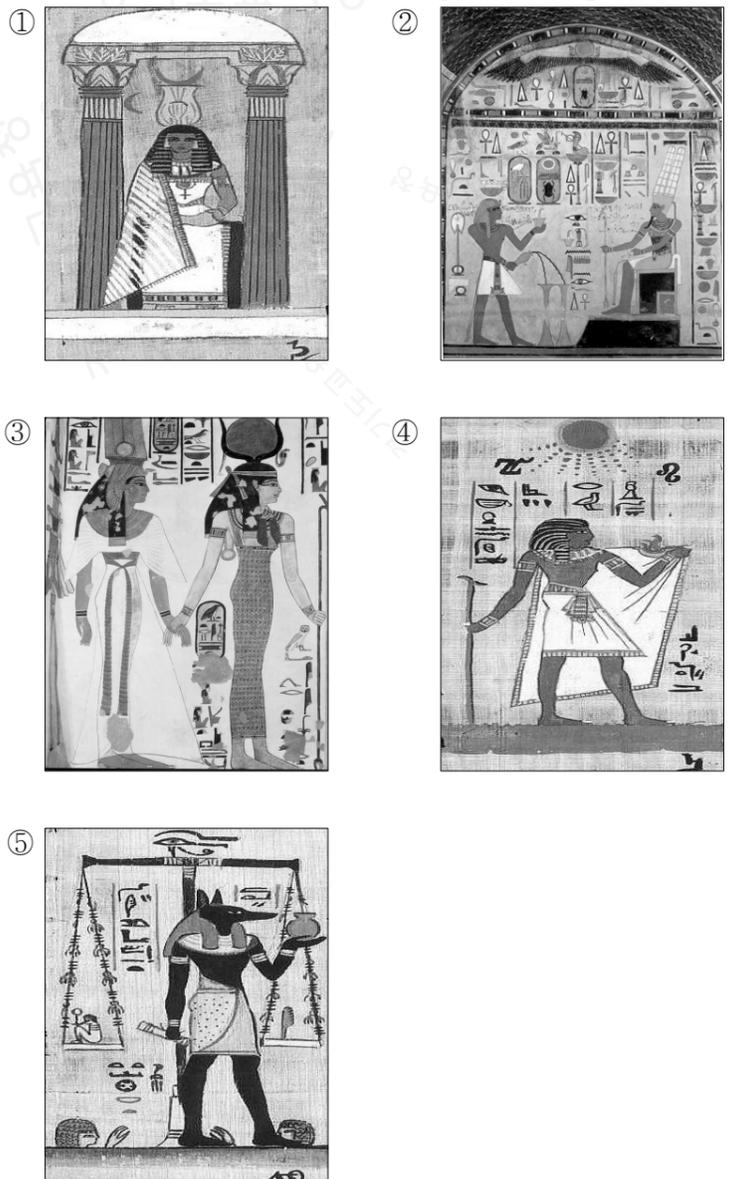
이집트인들은 왜 이런 묘사 방식을 택했을까? 보링거의 설명은 이렇다. 그리스처럼 축복받은 땅에선 인간과 자연 사이에 행복함 범신론적 친화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때 사람들은 ‘감정 이입 충동’을 갖게 되고, 그 결과 그리스 예술처럼 유기적이며 자연주의적인 양식이 발달한다. 하지만 이집트처럼 자연 환경이 척박한 곳에선 광막한 외부 세계가 인간에게 끊임없이 내적 불안감을 일으킨다. 이때 사람들은 이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추상 충동’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양식이 발달한다.

이집트인들이 추상적 양식을 발달시킨 이유가 꼭 환경의 소산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들은 영혼이 부활한다고 믿었고 영혼이 부활하려면 그것이 깃들어 있을 육체가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의 몸을 미이라로 보존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B] 미이라는 파손되기 쉬웠기 때문에 이를 조상(彫像)이나 회화로 대체했다. 이때 조각이나 회화 속에 죽은 자의 신체를 온전한 모습으로 보존하기 위해 정면성의 원리라는 묘사 방식을 택한 것이다. 한 팔이 몸통에 가려 안 보이면, 그 사람은 영원히 외팔이로 살아야 할 테니까 말이다.

41. 위 글의 ‘이집트 벽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집트인들이 생각한 사물의 묘사 방식을 엿볼 수 있다.
- ②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한 폭의 그림에 모두 담으려고 했다.
- ③ 이집트의 자연 환경과 이집트인들의 내세관이 드러나 있다.
- ④ 대상들을 가장 온전한 형태로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⑤ 예술을 불안감의 극복 수단으로 사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42. [A]에 부합하는 작품이 아닌 것은?



46. ㉠을 어렵게 하는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자가 울고 그러면 안 되지!
- ② 키가 큰 사람들은 역시 싱겁다니까.
- ③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성격도 좋아.
- ④ 수학과에 다녀서 그런지 진짜 계산이 빠르네.
- ⑤ 대화를 할 때 그렇게 욕설을 하는 것이 아니야.

47. <보기>는 사전의 뜻풀이이다. ㉢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것은?

< 보기 >

빠지다 ㉠ ㉡ 어느 정도 이익이 남다. ㉢ 이번 장사에서는 이자 돈 정도는 빠질 것 같다. ㉣ 원래 있어야 할 것에서 모자라다. ㉤ 천 원에서 백 원이 빠지는 셈이구나. ㉥ 차레를 거르거나 일정하게 들어 있어야 할 곳에 들어 있지 아니하다. ㉦ 이 책에는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다. ㉧ 일정한 곳에서 다른 데로 벗어난다. ㉨ 그놈은 쥐도 새도 모르게 뒷길로 빠져 달아났다. ㉩ 남이나 다른 것에 비해 뒤떨어지거나 모자라다. ㉪ 이 정도 실력이면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8~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옛날 사람들은 그저 활과 창과 검으로만 싸웠을까? 그 당시에 로켓과 같은 병기가 있었다면 쉽게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지 않았을까? 수백 년 전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병기가 있었을까? 이런 의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병기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에는 지금의 로켓과 같은 첨단 병기가 있었다. 고려 말 화통도감에서 활약한 최무선에 의해 개발된 ‘달리는 불’이라는 뜻을 가진 ‘주화(走火)’

가 그것이다. 이 주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 병기라고 할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지금의 로켓과 유사한 구조와 동작 원리를 갖추고 있다.

주화는 1448년(세종30년) 이전에 불린 이름이고, 그 이후에는 ‘신기전(神機箭)’으로 불렸다. <병기도설>에는 신기전을 대신기전, 산화신기전, 중신기전, 소신기전으로 나누어 그 크기와 구조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 중 가장 큰 형태인 대신기전은 당시의 실제 전투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였다.

대신기전은 발화통과 약통으로 구분된다. 이 발화통과 약통은 쇠축이 부착되지 않은 대나무의 위 끝 부분에 묶어 놓았으며, 아래 끝부분에는 발사체가 안정적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해 주는 날개를 달아 놓았다. 폭발물인 발화통과 달리 약통은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

대신기전의 몸체 역할을 하는 대나무의 맨 위에는 폭탄인 발화통을 장착하고, 그 발화통의 아래 부분에는 화약을 넣어 위 끝을 종이로 여러 겹 접어 막은 약통을 연결한다. 약통 밑부분의 점화선에 불을 붙이면 점화선이 타들어가면서 약통 속의 화약에 불이 붙어 연소 가스를 만들고 이 연소 가스는 약통 아래에 뚫려 있는 분사구멍을 통하여 약통 밖으로 내뿜어진다. 이 때 만들어지는 힘이 ㉠ 추진력이다. 그리고 약통의 윗면과 발화통 아랫면의 중앙에 각각 구멍을 뚫어 둘을 도화선으로 연결한다. 이와 같이 약통의 윗면에 폭탄인 발화통을 부착시켜 놓고 도화선으로 연결하는 것은 목표 지점으로 신기전이 날아가는 도중이거나 거의 날아갔을 즈음에 폭탄인 발화통이 자동적으로 폭발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발화통이 신기전의 핵심적인 폭발체라고 할 수 있는데, 발화통 안에 화약 무게의 약 27%정도에 해당하는 거친 섯가루를 섞기 때문에 이 섯가루가 파편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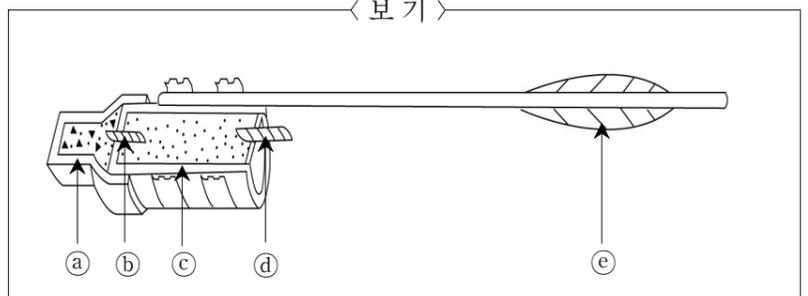
발화통까지 포함된 대신기전은 전체 길이가 약 5.6m의 대형 로켓으로 한 번에 여러 개를 날릴 수 있는 화차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화차에는 바퀴가 달려 있어 적진의 위치에 따라 이동해 가는 데 매우 편리했다.

주화와 신기전은 화약의 힘을 빌려 적진에 날아감으로써 사거리가 길고, 비행 중에 연기를 분출함으로써 적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며, 앞부분에 발화통이 달려 있어서 적진에 이르러 폭발한다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각 군영에 많은 양이 배치되어 사용되었고, 실제 주요 전투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조선군이 승리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되었다.

이처럼 신기전은 일찍이 우리나라 국방 기술이 낳은 대표적인 발명품으로 막강한 국방력을 과시하는 하나의 상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신기전은 주화에 이어 탄생한 장거리 공격용 무기로서 당시로서는 첨단 전투용 로켓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48. <보기>는 위 글의 ‘대신기전’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을 생각해 하는 것은? [1점]

< 보기 >



- ① ㉠ ② ㉡ ③ ㉢ ④ ㉣ ⑤ ㉤

49. 위 글의 ‘대신기전’을 제대로 이해한 학생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점화하여 발사하기 때문에 화약이 타는 연기와 불빛도 전투 상황에 영향을 미쳤을 거야.
- ② 발화통 속에 내장된 쇳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적군을 살상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었을 거야.
- ③ 화약이 터질 때 나는 소리와 연기가 적군에게 공포감을 주기 때문에 적진을 혼란시킬 수 있었을 거야.
- ④ 몸체 아래의 날개는 사거리가 멀어도 정확하게 목표물을 명중하도록 겨냥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거야.
- ⑤ 화차를 이용하면 한 번에 많은 양의 화살을 발사할 수 있어 적은 수의 병사로도 효율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었을 거야.

50. ‘신기전’이 발사되는 원리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례는?

- ① 고무풍선을 불어서 놓으면 바람이 나오는 반대 방향으로 풍선이 날아간다.
- ② 종이 위에 컵을 두고 재빠르게 종이를 당겨서 빼면 컵이 쓰러지지 않는다.
- ③ 사람이 단거리 달리기를 할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속도가 빨라진다.
- ④ 우주 공간에서 우주선은 적은 양의 연료로도 무한거리의 비행이 가능하다.
- ⑤ 언덕 위에서 자동차와 자전거가 동시에 출발하면 자동차가 더 빠르게 내려온다.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